



국보 제 119호 연가 7년형 금동여래입상. 고려 인연왕 9년(539). 총 높이 16.2cm

“우리가 어느 절에서나 반드시 만나보고 어느 박물관에 가더라도 쉽게 마주치는 불상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차레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를 바로 보는 첫 걸음이다.”

올해 화감을 맞은 간송미술관 최완수 연구실장은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1>의 집필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최 연구실장은 열 살 때 집안의 원찰이었던 충청남도 예산군 가야산 보덕사에서 부처님을 처음 보았다. 극락전에 독존(獨尊)으로 모셔져 있는 ‘아미타여래좌상’이었는데, 황금빛 나는 인물상의 잘생긴 모습에 반하여 유심히 살펴보니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머리가 이상했다. 마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1

치 사발 하나를 얻어 놓은 것 같은 이상한 머리에 대해 스님에게 물었더니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 보리수 열매가 머리 위에 떨어져 떨어 저런 모습이 되었다고 전해온다’고 말해 주었다. 최 실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건 아닐텐데’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 보겠다는 묘한 지적 호기심은 서술대 사회와 진학으로 이어진다. 그러

실할 가능한 밝혀놓았다. 제1부 ‘불상의 기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후 약 600년 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부처님의 모습이, 간다라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 이유와 점차 예배의 대상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2부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불상을 예배대상으로 삼은 중국 불교의 기원에서부터, 인도풍 불상에서 탈피해 점차 황인종 용모로 옮겨가게 되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불상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소

불상 통해 미술사 바로 보기

탐파·동종·부도·탑비도 광범연구 불교미술 관련 이념 배경, 역사 밝혀

나 어느 전문 학자에게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 규명에 나선다.

이 책은 최 실장이 40년 넘게 몸 바쳐 온 불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불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거기에 반영된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과 우리 불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불교미술의 중심인 불상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지만 탐파나 동종, 부도, 탑비 등 불교미술 전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언급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념 배경이나 역사적 사

개한다. 제3부 ‘법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처음 전래된 불상은 중국에서 양식화 되었던 간다라식 불상이었으며 그것을 조분(曹分)으로 하여 이후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구려와 신라, 백제 불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책은 EBS에서 2000년 9월부터 1년간 매주 1회씩 46회에 걸쳐 방송된 강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1999년 7월부터 신동아에 연재된 ‘최완수의 우리 문화 바로보기’ 30회 중 8회분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대원사 권, 2인8천원> 이은자 기자 elee@buddhania.com

우주! 어떻게 생겨나 어디로 가는가



평행하게 긴장된 수평을 유지한 채 흔들리지 않는 수평 막대처럼 있었다고 치자.

(▲) 이런 수평관계에서 왼쪽에 아주 작은 먼지라도 쌓이면 막대는 그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론 오른쪽에 그 먼지 질량에 해당하는 추를 얹어놓아 수평을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는지 다시 오른쪽이 기울게 되었다. 또 다시 왼쪽에 적당한 크기의 추를 올려놓아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수평막대는 계속 아래위로 움직이겠지만 여전히 그 수평을 깨지는 않고 있다. 즉 한쪽 막대가 땅에 닿지 않는 한, 수평막대가 계속 흔들려도 수평은 수평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수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는 수평과 후자처럼 조급식 요동이 있지만 여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흔들리는 수평이다. 전자의 수평을 우리는 무(無)에 유비할 수 있다. 일체의 흔들림이 없던 무의 수평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에 의해 양쪽 수평막대 끝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발생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수평막대의 위아래 요동은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곧 위치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교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동하지만 일시적으로 수평을 유지

이다. 이 책을 잘 읽으면 그것은 무에서 유가 탄생된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유에서 보이는 유로 전환되는 사건일 뿐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를 무라고 말할 뿐이다. 보이는(혹은 보일 수 있는) 유는 보이지 않는 유에 의해서 상재되며 따라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힘이 영으로 보존된다고 말한다. 무는 이러한 보존성을 일러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미래의 우주가 더 커질지 아니면 작아질지 결정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물체가 어느 일정 거리 안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그들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밀려들기 벌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일정 거리 밖에 놓이면 이내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주 물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결국 우주는 축소할 것이고 성기게 퍼져 있으면 우주는 팽창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 상

우주의 구멍



식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우주물질들 즉 암흑물질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으며, 비록 중력효과만을 갖는 암흑물질은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추론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유라고 하는 것은 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추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연구주제인 중성미자가 바로 암흑물질의 강한 후보임을 고려할 때 무에 대한 경험적 접근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논리학에서는 여자와 남자 혹은 A와 -A는 모순관계이면서 동시에 보

우주계의 유와 무는 포섭적 전환관계

입자물리학 내용 불교의 '공'과 흡사

하는 한쪽 끝에서 볼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된다. 쉽게 말해서 힘이 영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일단 발생했다는 점에서 에너지는 요동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무한히 늘어만 간다. 다른 쪽 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한쪽 수평막대가 한번 진동하면서 또 아슬아슬한 수평을 유지한다면 무에서부터 수사적인 차원에서 4배수의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한쪽 끝의 양의 위치 에너지는 비록 가상적 혹은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 끝의 음의 위치 에너지를 수반한다. 음의 에너지는 실제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전체로 보면 에너지의 합이 영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집합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주계에서 무와 유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포섭적 전환관계이다. 이 점은 이 책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며, 동시에 저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의 형상이다. 그 안에는 무가 유를 낳지만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이 아니며, 보이는 유는 무의 한 단편이라는 생각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불교를 좀 아는 이들이 이 책의 이런 전개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심장박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입자물리학과 우주물리학의 내용이 범어의 수나에서 용수의 중론에까지, 화엄경에서 구사론까지, 하다 못해 송대의 백양론이나 도가사상에 이르는 일련의 범공, 無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에 빠져버리면 우리 현대 불교 또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왜냐고? 책의 저자가 9장에서 말한 부분을 따오자. ‘불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물리학의 주요 관심사는 관찰대상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유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읽을 만한 책이었다.

최종숙/상지대 교수(과학철학)

헤르만 헤세 모든 시작은 신비롭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라”

헤르만 헤세(1877-1962).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어권 작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그의 작품에 열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헤르만 헤세-모든 시작은 신비롭다>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다. 헤세의 일생과 사상뿐만 아니라 작품의 해

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동양적인 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 자연친화적인 사상, 모든 종류의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을 헤세의 작품에서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평화의 수호자, 환경 운동가, 참된 종교인 등 헤세의 모습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서 우라나오는 대로, 바로 그렇



자취나 그의 말과 글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신비스런 힘이고, 그 힘을 신뢰할 때 각자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알로이스 프린츠는 바로 이 점이 헤세의 작품이 여전히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더북 권, 1만5천원> 이은자 기자

헤세 '평전' ... 생애와 작품세계 규명

설을 곁들인 본격 평전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헤르만 헤세의 평전이다. 이 책은 헤세의 작품이 그의 생애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의 정신적 성장과정과 작품의 발전과정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헤세의 생애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과

게 살려고 했을 뿐이다.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자가 자신이 정답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 고뇌하고 방황하며 독특한 자신의 길을 가라는 독서적 인 울림이 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인생살이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은 타인의 견해나 상인의 말씀, 이렇듯든 헤세의 삶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남전 잡아함경, 쌍웃따니까야를 아십니까?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환원으로 읽는 쌍웃따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주요목차 소개>

- 삶이 덧없고 박수는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깨달음이란 특별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 사위적인 부의 감각의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팔이 태어나면 심판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권력에 도취한 삶과 바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일까
- 수평을 닦는데 성직 재벌이 장애가 될 수 있을까
-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 천국은 어떻게 열릴까
- 깨달음을 이룬 뒤 말없이 주저한 귀환은 무엇일까
-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무거운 말로 오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종교와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
- 악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옳은 길일까
- 의 존재를 뛰어 넘어서 환인을 끌어와 할까
- 불교의 인과연관인 연기의 일반화적이며 어떠한 것일까
- 어떻게 생노병사의 세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 음바른 수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두루 알아야 할까
- 세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 무지한 자가 깨달은 자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깨달기 전에 부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 바다보다 많이 우리가 흠뻑 노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보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다윈을 방문할 때 상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깨달은 수행승에게도 어둠과 환대의 영성이 장애일까
- 수행자가 어원을 방문할 때 몸가짐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
- 나의 내 것이라든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 경망이 들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 홀로 떨어져 수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 몸은 별말에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병들지 않을까
- 누가 읽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해야 할까
- 시간의 외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삶의 무게를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 끊임없는 추론과 해답은 어디에서 올까
- 수행승들이 팔방을 부러진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 제자의 죽음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 이 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 아마도 무엇일까
-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일체의 세계란 무엇이며 경행 밖의 것을 말할 수 있을까
-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세에서 유일한 귀환은 무엇일까
- 부처님께서 생애의 수행승에게 발원인까지 어떻게 하셨을까
- 사물이 감각되고 인식될 때 나는 그 가운데 있을까
- 메타(대장경)에 정통한 자의 참다운 뜻은 무엇일까
- 귀부인의 오만한 초대에 수행승은 어떻게 응했을까
-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가 있는 인간에 비한다면 무엇일까
- 주관과 객관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 부처님께서 파견되었을 때 어떻게 법문을 하셨을까
- 어떻게 우리가 신들의 빛과 악마의 빛중에 목일까
- 여성이 귀여우려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 여성이 지닌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 열반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 재가생활에서도 타당한 일과 불을 성취할 수 있을까
- 지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경은 어떠한 것일까
-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제사는 옳은 일일까
- 수행자가 보석과 황금을 수용해도 좋을까
- 유명론적인 영의 이론에서 유리가 나올 수 있을까
- 율법에 대해 이교의 스승과 부처님이 어떻게 달리 말했을까
- 출생한 천국을 사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 불사(부처)의 몸짓과 그 불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 팔정도, 율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 모든 수행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을 지향할까
- 부처님께서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 참선은 절대적인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 나는 우월하다 는 자만이에게도 다른 자만은 무엇인가
-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는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
-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최후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만일까
- 부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 신봉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 부처님께서 환한한 열반에 드신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 몸이 풀렸을 때 마음 다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 부처님께서 홀로 계시 때 무엇을 하셨을까
- 세속적인 재가의 신자들 부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 술 마시는 불자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을까
- 부처님을 따르는 자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지옥으로 재가신도가 빠르지는 법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 위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초경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소멸도 보는가
-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생명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중자의 초목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호화로운 환대에 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음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목욕을 일삼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판 / 496쪽 / 값 18,000원

**백일역성전집에서 나온 책들**

- 쌍웃따니까야 전집(전12권) 값 300,000원
- 불교의 가르침과 팔정도 값 9,000원
- 신간 마지미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 범어문법 값 80,000원
- 불일리아서전 전2권 값 70,000원

이 책은 불어역성전 02-3672-7184나 02-2631-3770로 문의하시면, 교보문고로 비롯한 주요서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법보서 주문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살피는 오늘날의 우리들로서 - 한국 불교학 연구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 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fsc@kpfsc.org